

미인의 손길 따라 속절없이 지나는 봄날

작가 에세이

오소후
시인
한국예술문화명인



광주 대의동 비움박물관 기획전시 미인도를 관람한다. 비움박물관은 지난 반세기, 한반도에 버려지다시피 나뒹굴던 민속품을 숙명처럼 모아서 닦고 어루만지고 보관하다가 좁은 공간이나마 '세월의 장터'로 세운 곳. 지금은 우리네 살림살이의 쓸모에서 떨어져 간 옛 물건들의 쓸쓸함과 그리움, 서러움의 몸짓들이 아름답게 남아있다. 이번 전시회도 한반도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불과 반 백년 만에 낯설은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가난한 세상에서 태어나 밥 짓고 옷 짓고 복지며 자식을 지극 정성으로 키웠던 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놓고 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이날 만난 봄날 미인은 날카로운 호미를 들고 산수유꽃빛 저고리를 입고 카네이션꽃 같은 무늬가 그려진 치마를 입었다. 애기 단풍나무 새순이 초록초록한 언덕에 앉아 그리움이 지나가는 찰나, 그 순간의 미인을 그린 그림이 홍보용 걸개로 걸렸다. 미인은 지금 봄풀이 돋는 푸른 언덕에 앉아 쉬고 있다. 봄이니까, 미인이니까, 그리고 일하는 모습이니까 힘찬 그러나 조용한 휴지가 느껴진다.

여인의 모습이야 미인이니까 말해 무엇 할까 만든 '사군십이시(思君十二時)'라는 화제가 써여 있어 더욱 심금을 울린다. 그리움, 기다림, 보고자움을 그린다는 일은 신의 붓길이 아니고는 불가

능할 일이다. 그러나 우파(友波)의 이 그림 앞에서 숨을 죽인다. 12시는 옛 적에 두 시간을 한 시점으로 해야 했다.

김수영 시인의 시 '미인'을 읽어본다. "미인을 보고 좋다고들 하지만/미인은 자기 얼굴이 싫을 거야/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미인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미인과 앉은 방에선 무심코/따 놓는 방문이나 창문/담배 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아니려다."

이 시는 정말 단순히 미인을 묘사 서술한 시가 아니다. 읊 몸으로 시를 써낸 김수영 시인의 손가락으로 물 튀기 기법의

“미인도를 감상하면서 아름답던 나의 시절과 고단했던 한 때와 그리고 간절했던 기도가 겹쳐 지나간다. 이 아름다운 봄날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고 있다.”

시는 또 한 번 숨을 죽이게 한다. 그는 산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이는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 현대 미학의 조건인 동적 미를 갖추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우파가 그린 '사군십이시(思君十二時)'는 살면서 한 번쯤 묵시도 그리운 대상을 종일토록 기다리며 진실의 미간을 모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썹과 콧날과 얼굴선을 바라보며 미인을 그린 작가의 마음에 접화(接化)되어 본다. 두 아이를 등에 업고 걸리고 국화꽃밭에서 다정히 바라보는 애들 엄마 미인도. 엄마들은 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그림에는 이런 화제가 써여 있다. 佳色含霜向日開(곱게 서리 머금고 해를 향

해 피었나니) 餘香冉冉覆苔(남은 향기 이끼에 덮여서 은은하다) 獨舞籥操非凡種(유독 절조 어여빠 비범한 꽃 심었으니) 曾向陶君徑裏來(옛날 도연명처럼 길 따라서 오시리라)

청로 송부종님의 고전번역으로 이 그림을 환하게 접근한다. 그림 속 여인의 절조를 기렸을 화가의 미션은 지금 세대들에게는 어려울까. 자본주의 사회가 더욱 어렵고 아이 돌을 데리고 살아가는 일이 무거워서 저출산국이 되어가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미인도 전시품은 40여 작품이다. 태극선을 들고 파초 곁에서 있는 미인, 노랑계 익은 비파나무 아래 선 미인, 희일(禧日)을 위해 단장하는 여인, 정부인이 서책을 읽는 여인, 목욕하는 여인, 기녀 복장의 여인 등 미인도는 마음을 쓰담쓰담 해준다. 겨울 눈 내리는 날 검은 경도비단 두루마기와 머리머플러와 꽃신을 신고채비하고 나서는 경성시대 미인, 옥잠을 꿇고 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먼데 시선을 던지는 미인, 가장 미인은 초례청에 선 원삼족두리를 쓴 신부일까. 주름투성이 노파 정화수 앞에 놓인 삼신할매일까. 미인도를 감상하면서 아름답던 나의 시절과 고단했던 한 때와 그리고 간절했던 기도가 겹쳐 지나간다.

시간 속의 사람, 시 속의 사람, 그림 속의 사람 등 미인도는 '현존의 존재'를 확인하는 넉넉한 시간이었다. 나는 어떤 공간 어떤 모습의 미학적인 미인으로 비추일 수 있을까. 미인도에 취해 있는 동안 비움박물관 이영화 관장이 "텅 빈 아름다움에 몰입표로 심표로 느낌표로 위로받고 가시라."고 한다. 이 시대의 미인 이영화 관장의 따뜻한 손길을 따라 이 아름다운 봄날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고 있다.



의정단상 정다는 광주시의원

친일굴종외교를 한 대통령에 맞서 시작된 국민적 저항 시작에 임하여

꽃피는 3월. 찾아든 봄을 즐길 새도 없이 우리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친일굴종외교 때문이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두고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평가했고, '일본은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일제강제징용의 피해를 우리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3자 배상안'을 정부 해법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련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인가.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고 국민을 가르치면서, 정작 대통령은 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일본 의존도를 낮춰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켜나가기에 커녕,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 산업단체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것을 빼앗아 일본에 안겼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일본의 국익을 좇는 대통령에게 걸릴듯 취급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열했고, 국민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일본은 1945년 8월15일 이후 지금까지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며,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본 주장에 부합하는 학술자료를 생산해 역사 왜곡을 자행하면서, 향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자,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며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굴종 외교 이후에는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강제징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을 일삼는 일본을 겪어왔던 우리 국민의 정신에 침략의 아픔과 분노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의 이익을 좇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저항에 나서는 오늘의 현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격렬한 반발을 기어기 외면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국익을 위한 외교'였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일본에서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 직원들이 환호를 보내며 환송해줘서 좋았다는 브리핑을 해대며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얼빠진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늘날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매국정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음을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가.

지방의회 의원이자 정치인인 필자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지, 오늘날의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생각해 봤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이고, 정책은 그런 정치활동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존재할 수도, 추진될 수도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지 않은 정책은 국민적 저항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통치자는 그저 주권자의 명령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이미 매일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국민의 몸에는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국민의 정신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살아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날 대통령이 일본에 굴종과 굴신으로 일관하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국민의 따뜻한 봄날을 앗아갔으므로, 이제 우리 국민은 주권자의 힘으로 뜨거운 저항의 봄날을 만들어 갈 참이다. 필자도 광장에 서서 뜨거운 봄날을 맞이하려 한다. 몸으로 마음으로 오늘의 저항운동에 함께해주시길 기대한다.

광주 스카이라인,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

기고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



세계적 도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축물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탄생한다. 크고 작은 건물들, 다양한 형태의 건축디자인이 만들어 낸 도시경관은 명품도시가 가지고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도시경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스카이라인이다. 스카이라인은 여러 건축물과 하늘이 만나는 윤곽선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에 의해 만들어진다.

런던,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지닌 도시이다. 이 도시들은 개성을 잘 살린 스카이라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존과 개발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했다.

스카이라인이 잘 관리되는 도시는 오랜 세월을 거쳐 건축물높이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을 건축가, 개발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광주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획일적인 층수에 의해 일자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밀집

된 원도심 일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고층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는 있으나 주변 원도심과는 단절되어 있다. 또한 교통거점에서 바람길 확보의 부족으로 시각적 개방감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광주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가 개별 필지 위주로 개발되어 도시 전체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千篇일률적인 '30, 40층 높이 제한'은 광주시의 스카이라인을 뚜렷한 특징없이 밋밋하게 만들었다.

민선 8기 들어 우리 시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광주만의 매력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높이'와 '형태'이다. 오는 상반기 고시될 예정인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즉 스카이라인 관리방안을 다루고 있다. 위 계획이 마련되면 시 전역이 일반지역 또는 중점경관 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지역은 고밀 주거지, 가로경관 등으로 관리되고,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기존의 무등산, 영산강 등의 4개소에서 백운광장, 광전동 일원, 광주역 및 원도심 일원이 추가된 7개소로 확대 지정되어 좀 더 심도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층수로만 관리되었던 높이

규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높이 관리로 가능해진다. 백운광장, 광전동 일대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도시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이, 우리 시의 대표적 자연경관인 무등산, 영산강 일대는 주요 조망 축에서 경관검토를 통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즉 도시 다우면서도 자연의 웅장함 역시 간직한 도시경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의 형태는 오는 4월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건축물심의기준으로 관리된다. 바람길 확보된 건축물의 배치 특화 디자인으로 다양성 유도, 주차계획, 조경계획 등과 같은 상세한 건축물심의기준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45 탄소중립도시 목표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과 지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 첫걸음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층수 제한 해제일 것이다.

도시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다. 광주를 이끌어 나갈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매력 넘치는 광주의 모습이었으면 한다. 도시경관 변화가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